

전문대 '코로나 학번' 취업 별따기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실습조차 못하고 졸업장 비대면 수업 학업 집중도 하락...핀셋 정책 필요

코로나19 학번이라 불리는 광주·전남 2020학번 전문대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실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장을 받게 됐다.

더구나 항공·호텔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업계들의 채용도 줄어 졸업생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13일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2020년 광주·전남 전문대학 현장실습 참여기관은 총 87개 대학에 967곳에 달한다. 2년 전인 2018년 1,084곳보다 약 10%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등의 부담감에 기

관과 기업이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업 집중도 또한 떨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 지역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 김 모 씨(21)는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이 대면 수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막상 취업을 앞두고 보니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학과 오 모씨(22)는 “코로나19로 현장실습을 나갈 복지기관을 구하

기 쉽지 않았다”면서 “은 좋게도 어렵게 구한 곳에서 실습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학과 이 모씨(26)는 “전문대가 취업이 잘된다고 해서 4년대를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에 지원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19 탓인지 실습도 줄고 취업도 어려워 이전 옛말이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졸업 이후 취업도 문제다. 실제 전문대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호텔·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이후 채용은 더 어려워졌다. 에어부산과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의 경우 2년간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모씨(25)는 “스튜어디스의 꿈을 안고 대학에 지원했지만 채용계획이 들러오지 않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현

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나서 기관과 기업들의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를 촉진하는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지역 전문대 관계자는 “사회복지과나 유아교육과는 실습기관에서 교육훈련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학생 실습에 한해 기관 출입을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인 만큼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직업훈련과 전공전환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핀셋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작년 전남 동부권 사업장 임금체불 급증

전년대비 60.8%↑...설 기간 예방 체계 구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남 동부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60.8%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5,845명으로 작년보다 45.9% 늘었다.

임금체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설업(47.4%)과 30인 미만 사업장(73.3%)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2019년에는 100억여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고, 2020년에는 208억원, 지난해는 178억원의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홍승현 기자

'클럽 붕괴' 조례 로비 이상동 법정 구속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류회사 자금 1억 8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클럽 붕괴 사고 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 행위를 해 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인구수 대비 선거인 수를 충족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최환준 기자

'학동 붕괴' 현안 임원 구속영장 철거업체 선정 개입 혐의

경찰이 광주 학동 참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13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위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위법한 철거행위를 한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제한 경쟁 형식을 빌려 이미 내정한 업체를 철거업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철거업체 선정 입찰 관련 결재를 권순호 전 현안 대표와 A 전 본부장이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들이 입찰 방해 혐의에 관여했는지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A 전 본부장은 학동 참사 이후인 지난해 12월에 이bane 붕괴사고를 낸 광주 서구 현안이파코 사업의 시행사인 HDC아이앤스 대표로 인사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업체선정에 관여한 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처리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업체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이미 구속 송치해 이들은 재판 받고 있으며, 조합 관계자 등 업체선정에 관여한 이들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환준 기자



광주시 문인 북구청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최형식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4개 지역 단체장이 13일 오후 장성에서 제5차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북구재공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대선공약 발굴·현안 공동대응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장성군 등 4개 지역 단체장이 13일 장성에서 만나 제5차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장들은 ▲북부권 협력체계 구축 및 균형발전 도모 ▲상생발전 대선공약

발굴 ▲현안사업 공동대응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고품화과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에 공감하고 광주전남 북부의 경제·문화·생활권을 통합해 인공지능 융합형 스마트 혁신도시를 조성, 지역 상생발전의 시너지를 높여나가기에 의견을 모았다. /최환준 기자

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시설이 있는 장성군으로 유치해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도 견고한 협력체계를 교류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등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대리수술' 의사·간호조무사 집행유예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 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1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 A씨(61)와 B씨(52), 간호조무사 C씨(51)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D씨(56)와 간호조무사 E씨(42), 간호조무사 F씨(4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금과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 지시를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의료 법률 체계에 어긋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대리 수술과 달리 수술 마무리 단계인 피부 봉합만 맡긴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고 이의 제기나 부작용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h2>경매 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table border="1"> <tr> <th>지역</th> <th>내역</th> </tr> <tr> <td>광주</td> <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td> </tr> <tr> <td>전남</td> <td>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빚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td> </tr> </table> <p>010-6670-9800</p>	지역	내역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빚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수익 750만 년수익 9000만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010-6670-9800</p>
지역	내역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빚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